

완도군, 해양치유 브랜드 강화 '주력'

'K-농산어촌 한마당' 참가...해수부·태안군과 공동관 운영 자체 개발 머드팩 등 전시 호응...9월 해양치유센터 개관

완도군이 오는 9월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둔 가운데 해양치유 브랜드 강화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K-농산어촌 한마당'에 참가해 완도해양치유센터와 해양치유산업을 홍보했다"고 14일 밝혔다.

K-농산어촌 한마당은 저출산, 초고령화, 청년 유출 등으로 지방 소멸이 거론되고 있는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콘텐츠를 발굴하는 전시 박람회다.

올해는 160개의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군은 해양치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수부, 태안군과 함께 공동관을 운영했다.

특히 완도군은 군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사용될 해양



완도군이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K-농산어촌 한마당'에 참여해 자체 개발한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사진 오른쪽)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치유 테라피 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테라피 제품은 피부 미용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 머드팩 피부 컨

디션 회복과 보습에 효과가 있는 식물체 연화 기술을 활용한 해조류 고농축 애플, 긴장 완화 및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입욕제, 피부 영양 및 각



(완도군 제공)

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스크럽 등이 다.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은 "완도 해양치유 브랜드 강화와 홍보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오는 9월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완도 해양치유산업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2017년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을 건립해 운영 중이며, 오는 9월에는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모든 치유시설을 그랜드 오픈할 계획이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수와 갯벌, 해조류 등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딸라소플, 명상 풀, 해조류 거품 머드 테라피실, 해수 미스트실 등 16개의 치유요법 시설이 운영된다.

한편 부대 행사로 치러진 'K-농산어촌 한마당 대상'에서는 김광호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시설 팀장이 해양치유 부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완도=윤보현기자

신안군 "천일염 가격 상승, 강수일수 증가 등 복합요인"

유통구조·생산시설 개선 등 작용...현재 평균 1만8천원선 거래

신안군이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관련 강수일수 증가와 생산시설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신안군은 14일 "천일염 가격 상승은 기상 여건에 의한 강수일수 증가와 2008년 이후 식품으로 전환됨에 따른 생산시설 개선, 자동화 장비 보급, 안정적인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매년 3월28일부터 10월15일까지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20만3천t을 생산, 전국 생산량 26만1천t 대비 78%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말 기준 생산량은 3만6천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생산된 4만1천t 대비 약 5천t(12%)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같은 생산량 감소를 올해 4·5월 28일 간 비가 내려 최근 5년 간 같은 기간 평균 강수 일수인 15일 보다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신안군의 천일염은 전국 평균 가격 1만8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군은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 갯벌

에서 생산하고 있다. 신안 천일염은 미네랄과 철분, 칼슘 등이 다량 함유돼 천연 영양제로도 통하며 전통 발효음식을 비롯한 모든 음식의 중심이자 기본이 되는 천연 조미료로 쓰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 천일염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체계적인 수급 조절 및 산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천일염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양훈기자



함평군, 멸종위기 '풍란' 전시회 개최

멸종위기 지정식물 1급인 '풍란(蘭)'(사진)을 만나 볼 수 있는 자리가 함평군에 마련된다.

함평군은 14일 "15일부터 8월31일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풍란전시관에서 '2023년 풍란(蘭)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소중한 우리의 멸종위기 식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멸종위기 식물인 풍란의 보존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수려한 색채와 기품있는 향기를 가진 나도풍란과 풍란 등 4천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나도풍란'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상록성 여러해살이 난초로, 전남 도서지역과 제주도에서 자란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발견되지 않으며 관상 가치가 매우 높다.

'풍란'은 아시아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착생근으로 전남과 경남 해안지역, 제주도 등지에서 주로 자생하며 향이 매우 진해 원예적 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란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멸종위기 식물 보존을 위해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멸종위기 생물 보존을 위한 '제1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동·식물)그림그리기 전국대회'가 오는 9월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체험학습장에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산림공원과(061-320-2865)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연수기자



해남군이 7월14일부터 8월20일까지 순호해수욕장을 개장, 7월말에는 순호해변 여름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순호해변축제의 모래조각 만들기 체험.

해남 순호해수욕장 내달 14일 개장

8월20일까지 38일간 운영...7월 말엔 여름축제도 개최

해남군이 다음달 14일 순호해수욕장을 개장한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개장 기간은 8월20일까지 38일 간으로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오후 7시다.

군은 개장 전까지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편의시설 확충, 물놀이 가능구역 지정, 안전시설 설치 등 피서객맞이를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7월 말에는 해변콘서트와 문화공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순호해변 여름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망갈마을과 인접한 순호해수욕장은 해남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해변가의 수백년된 노송림과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결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으며 해수가 제방을 따라 이어져 있어 야영을 하기에에도 적합하다.

/해남=박필용기자

진도군,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휴대폰·유선전화·앱 통해 청취...주민 편의 증진 기대

진도군은 14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전 마을에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농어촌지역 고령화와 기존 마을방송 방식의 시간·공간·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마을 이장이 휴대전화기와 유선전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들에게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과 전화를 통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특히 진도읍 시가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은 마을방송 청취가 곤란

했지만 스마트폰으로 바로 청취할 수 있고, 녹음된 방송을 다시 들을 수도 있어 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스마트폰이 없는 주민은 스마트 마을방송 등록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등록하면 휴대폰 또는 집 전화로도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김희수 군수는 "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한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 구축으로 주민 정보통신 편의 증진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정보 전달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권기자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 전남지사 접견

입장차 확인 그쳐...범대위 "반대활동 지속"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4일 "지난 12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도청 접견실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범대위와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서로 간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박문재 범대위 위원장은 "만남 이후 전남도 측에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에 대한 군민의 뜻을 김지사에게 전달하는 자리이자 첫 만남이라는 데 의견을 뒀지만,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다"

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자료 작성을 요구했으나 전남도가 이를 어기고 마치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 창구가 마련된 것처럼 홍보를 했다"며 "전남도에 즉각 이틀 회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대위의 3번의 요청 끝에 겨우 성사된 만남이 서로 간 신뢰만 깨진 불관한 자리가 돼 앞으로 어떻게 도를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무안 군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반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김상호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돼야"

원전 소재 지자체행정협, 사용 후 핵연료 체계적 관리 주장

영광군은 14일 "군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를 요구했다. 국회위원회 제1차회의실에서 열린 제32회 원전 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에 대해 의결했으며 공동건의서를 이인선·김영식·이개호 국회의원, 산자위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에 전달했다.<사진> 공동건의서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 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협의회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 부담을 더 이상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 후 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설치, 저장용량은 최소 운영 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 후 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저장용량·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요를 보장하라는 내용도 공동건의서에 담았다.

/영광=김동규기자